"만들수록 손해" 저녁 일일극 위기

시청률 저하·광고수급 어려움 등 잇단 폐지 … KBS 2TV만 명맥

SBS에 이어 MBC도 저녁 일일극 폐지를 밝히면서 이제 저녁 일일극은 KBS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드라마 전쟁은 나날이 격화되면서 올해는 최대 120~130편의 드라마가 쏟아질 예정이지만, 광고가 안 붙고 시청률도 저조한 저녁 일일극은 속속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퇴근 후, 저녁밥을 먹으면서 시청자의 안식처가 됐던 저녁 일일극은 어쩌다 이런 운명이 됐을까.

◇ SBS 이어 MBC도 폐지…"만들수록 손해"

SBS TV는 지난해 6월 '사랑은 방울방울'을 끝으로 저녁 일일극을 폐지했다. "만들수록 손해"라는 이유였다. 시청률도 안 나오고, 광고도 붙지 않으면서 더 이상 제작하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MBC TV는 현재 방송 중인 '전생의 웬수들'이 끝나면 후속작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120부작으로 오는 5월 종영 예정이다.

최승호 MBC 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MBC가 드라마가 너무 많다.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편"이라며 "제작비 문제와 인력 문제가 동시에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일일드라마보다는 제대로 된 16부작 미니시리즈를 더 만들어서, PD들이 기회를 얻어 실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MBC 역시 수익 때문에 일일극을 포기했다. 한때는 저녁 8시 '뉴스데스크' 전후로 두 편의 일일극을 편성하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던 MBC이지만 광고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MBC는 지난해 11월 '뉴스데스크' 이후에 방송하던 일일극을 먼저 폐지했다.

통상 저녁 일일극은 그 직후 편성되는 저녁 메인 뉴스로 시청자를 유입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SBS와 MBC 저녁 일일극이 이같은 역할에서도 기능하지 못하면서 결국 양 방송사는 저녁 일일극을 폐지하게 됐다.

임성한 작가, 김순옥 작가가 집필하던 저녁 일일극이 MBC와 SBS의 스테이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대대적인 화제를 모으던 시절은 방송 환경 변화와 함께 오래전 '전설의 고향'이 된 것이다.

◇KBS 2TV, 편성서 유리한 고지 점하며 20% 오가

반면 KBS 2TV 저녁 일일극은 편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이 엄혹한 시기에도 홀로 시청률 20%를 오가고 있다. 당연히 평일 최고 시청률이다. 오후 7시20분부터 8시20분까지 방송되는 KBS 2TV 저녁 일일극은 타사 뉴스 프로그램과의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한다. 오후 8시에 메인 뉴스를 내보내는 채널이 많아지면서 뉴스 시청률이 분산되는 반면, 뉴스를 보기 싫어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저녁 일일극 '내 남자의 비밀' 역시 시청률 20%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간 경쟁하는 SBS TV '8뉴스'는 5~6%, MBC TV '뉴스데스크'는 3%, JTBC '뉴스룸'이 7~8%대 시청률을 기록한다.

이러한 높은 시청률 덕에 '내 남자의 비밀'은 광고가 70%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제작비를 보전하고 남는다. KBS 2TV 저녁 일일극에는 회당 3천500만~4천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투입된다.

KBS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시청률 20%가 나오면 광고가 완판됐다"면서 "요즘은 20%가 나와도 완판이 안될 정도로 광고 시장이 안 좋아졌으니 시청률이 안 나오고 광고가 붙지 않으면 방송사로서는 일일극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9시 뉴스' 직전인 오후 8시30분 방송하는 KBS 1TV 저녁 일일극 역시 변함없이 계속 간다. 광고가 없는 채널이지만 1TV 저녁 일일극은 시청자 서비스 차원과 함께 '9시 뉴스'로의 시청자 유입을 위해 유지된다.

KBS 1TV 일일극이야말로 편성의 이점을 한껏 활용해 한때는 시청률이 40%를 넘어서는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상파에서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이제는 20%를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나마 노년층을 중심으로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이 여전히 있어 늘 15% 이상은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 아침 일일극은 반대 운명…MBC·SBS는 유지, KBS는 검토

아침 일일극은 이와 반대의 운명이다. MBC와 SBS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 KBS 2TV는 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침 일일극의 경우는 타깃 층이 주부로 명확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청자를 확보해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다. 오전 7시50분 MBC TV를 시작으로, 8시30분 SBS TV, 9시 KBS 2TV 아침 연속극이 잇따라 편성된다.

이중 MBC와 SBS 아침 일일극은 수지타산이 맞아 계속 방송될 예정이다. 양사 모두 아침 일일극에서는 극성 강한 이야기로 승부를 펼친다. 반면, KBS 2TV는 'TV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시대극을 선보이며 상대적으로 '순한' 이야기를 펼쳤다.

정성효 KBS 드라마센터장은 19일 "저녁 일일극과 달리 아침 일일극이 수익 면에서 떨어지고 그간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온 게 아닌가 싶어 현재 준비된 드라마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MBC '돈꽃' 시청률 20% 돌파

장혁·이순재·이미숙 등 배우 연기력·영상미 몰입

MBC TV 토요극 '돈꽃'〈사진〉이 시청률 20%를 돌파했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5분부터 2회 연속 방송한 '돈꽃'의 시청률은 17.0%, 20.7%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강필주(장혁 분)가 할아버지 장국환(이순재)에게 장부천(장승조)이 청아그룹 장씨 집안 아들이 아님을 폭로하고, 연이어 정말란(이미숙)에게 자신이 장은천이라고 밝히는 모습이 담겼다.

'돈꽃'의 상당 지분은 주인공인 장혁이 갖고 있다. 장혁은 완전한 복수를 위해 감정을 배제하고 포커페이스로 살아온 강필주를 섬세하게 표현해낸다. 다른 복수극처럼 고성이나 난투극도 없고, 표정의 변화조차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노, 슬픔, 연정 등 다양한 감정을 담아낸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청아가 총수 역의 이순재와, 아름다움과 독기를 동시에 품은 안주인 이미숙도 극을 탄탄하게 받친다.

특히 장혁과 이미숙이 나란히 설 때면 각자 카리스마로 화면을 꽉 채워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게 시청자들의 평이다.

배우들의 연기를 설득력 있게 채워주는 것은 연출의 힘이다.

고루한 소재인 재벌가 출생의 비밀, 복수, 사랑 등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그 구슬들이 빈틈없이 엮인 덕분에 중구난방처럼 보이지 않는다. 토요일마다 2회 연속 방송해 약 2시간씩 극이 이어지지만 매회 짜릿한 엔딩 덕분에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평일 미니시리즈가 부럽지 않은 뛰어난 영상미와 배경음악도 극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한다. 강필주가 장국환과 정말란 모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진짜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돈꽃'은 종영까지 4회를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알렉스, 9살 연하와 이달 결혼

가수 겸 배우 알렉스(본명 추헌곤·39·사진)가 패션 관련 사업을 하는 여자 친구와 이달 결혼한다.

21일 소속사에 따르면 알렉스는 27일 부산의 한 휴양 시설에서 지난해 여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9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화촉을 밝힌다.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부산에 연고는 없지만 아는 분의 소개로 '스몰 웨딩'에 적합한 장소로 결정했다"며 "알렉스가 여자 친구가 일반인이어서 양가 가족만 참여한 가운데 조용하고 소박하게 예식을 치르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알렉스는 2004년 혼성 그룹 클래지콰이로 데뷔했으며 2008년 첫 솔로 앨범을 내고 솔로 활동도 겸했다. 또 '파스타', '웃어라 동해야', '천일의 약속', '호텔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등의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자로도 주목받았으며 각종 예능에서 요리와 카레이싱 실력 등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영화가 좋다(재)	50 투깝스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0 UHD 한식의 마음	50 저글러스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12 MBC 뉴스 20 투깝스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톡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아카데미	50 VJ 특공대	30 문화사색	
2	50 콘서트 필(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감다큐, 사람 50 팔도밥상 스페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5 꾸러기 식사교실 35 샤이닝스타	
4	00 4시 뉴스집중		00 랭킹쇼 1,2,3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재) 30 팔도밥상 스페셜 (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재) 30 살림하는 남자들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웬수들 (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밥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섹션 TV 연예통신 스페셜 (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의문의 일승
11	10 월요기획	10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 (재) 50 생활의 발견	35 사랑의 가족 (재)	10 앙코르 MBC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하객유람기 루산(여산)〉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허풍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굴 배추전골과 당근조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욘드(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뚝딱맨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쿵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통영의 겨울 볼락〉
20:50 세계테마기행 〈낯선 즐거움 이스라엘 겨울기행 - 베들레헴에서 사해까지〉
21:30 한국기행 〈국수기행2 한겨울, 우리는 정선으로 간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트레팔리움 5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2일(음 12월 6일 甲寅)

子 48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법이다. 60년생 상대를 위하는 자세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리라. 72년생 엎드려 있는 호랑이가 보이니 조심하라. 84년생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83, 76

丑 49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61년생 영예로움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73년생 적나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것이니 세세하게 신경을 쓰자. 85년생 초기에는 영세하나 나중에는 성황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78, 32

寅 50년생 상대의 표정과 언행은 자신의 거울이니라. 62년생 단처가 될 만한 소지는 충분히 남아 있도다. 74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86년생 미리 마음속에 세운 계획이 있다면 지금 즉시 실행하자. 행운의 숫자 : 26, 89

卯 51년생 부담스럽다면 가급적 조용히 피해 나가자. 63년생 소망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75년생 미진한 부분만 잘 잡아낸다면 상당한 진전을 보이리라. 87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자가 될 수도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7, 03

辰 52년생 번거롭더라도 원칙과 체계에 따르는 것이 영속성을 담보한다. 64년생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느니라. 76년생 애초의 성향에서 특별한 형태로 변모될 것임에 틀림없다. 88년생 전도양양하니 대단히 희망적이다. 행운의 숫자 : 97, 48

巳 53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65년생 큰 구도 속에서 운용하되 기본 체계를 중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77년생 멀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89년생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일에서 비롯된다. 행운의 숫자 : 82, 75

午 42년생 뒤탈은 없을 것이니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된다. 54년생 불완전하지만 그렇다고 속 태울 정도는 아니로다. 66년생 국면 타개에 매진해야겠다. 78년생 임시 위상이니 부담 없이 임해도 된다. 90년생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15

未 43년생 규칙적이라야 현상을 감당하게 된다. 55년생 길운이 순조로움을 부른다. 67년생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태이다. 79년생 희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소비적이라면 고려해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1, 59

申 44년생 지나치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우리라. 56년생 백해무익한 것에 대한 청산은 빠를수록 좋다. 68년생 자신이든 상대이든 간에 체면 가리지 않고 이상을 띨 수 있다. 80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56, 43

酉 45년생 전례에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다. 57년생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69년생 미흡함이 보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해야겠다. 81년생 까다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50

戌 46년생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보인다. 58년생 과감한 결단을 한다면 발전을 도모할 것임에 틀림없다. 70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흥왕의 전기를 마련한다. 82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17, 78

亥 47년생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다. 59년생 처음부터 오르지 않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안전하겠다. 71년생 여러 곳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보인다. 83년생 변경하지 말고 현행대로 실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84, 8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